

농산물 유통체계 改善 드림농정 추진

포천시 2007년 풍년농사 실천 농업관련단체장 간담회

포천시는 1월9일 농업관련단체장 및 축종대표 작목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풍년농사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WTO/FTA 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의 판매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비 증가 및 노동인력 노령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 관련 단체장들은 각 단체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박윤국 시장은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재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단일화 브랜드뿐만 아니라 각 품목별 농산물의 브랜드 통합을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 관련 단체장들이 선두에 서서 노력해 줄 것을 피력하고, 생산에만 주력하지 말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미래 농촌을 준비하는 드림농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시가지에 방치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건강에도 유해합니다"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투기한 사람을 단속하는 포천시 환경자원과 여성 공무원 한주희(환경 8급)씨.

한주희 여성 공무원 "쓰레기 투기 그만"

쓰레기 봉투 개봉 불법 투기자 170건 단속

한주희씨는 여성이라기 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시가지 한 복판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단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개봉하고 누가 버렸는지 찾는다.

한씨는 1주일중 4일은 현장을 방문, 불법 투기자를 찾고 하루는 악의성이 있는 불법 투기자를 행정처분하는 작업을 한다.

에 나선 것은 올 1월부터 2월13일 현재 단속 건수만해도 170건에 이른다.

한씨는 "아직도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버린 사람을 찾아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상습적인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단속된 유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이 75%이고 나머지는 배출시간 위반이라고 한다. 쓰레기 봉투를 개봉하는 것은 투

기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한다. 봉투를 개봉해 보면 카드사용 전표나 영수증을 보면 관련기관에 의뢰해 계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이런 증거물이 없으면 인근 상가를 방문해 투기자는 반드시 찾아 계도한다.

여성으로서 힘들지 않는다는 질문에 한씨는 "공무원 임용전부터 환경직이기 때문에 각오했던 일"이라면서 "쓰레기 봉투를 개봉하면 나는 역겨운 냄새에 익숙해졌다. 올 여름을 대비해 이미 썩크림과 모자를 준비했다"고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승남 기자 form65@paran.com

자유기고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 잔치

여러 번 참석했던 시상식 같으니 생각하며 행사장에 들어서자 관계자 분이 딸아이의 이름과 학교명을 체크하며 좌석을 안내해 주시는데 수상학생들 옆으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의 자리가 마련된 것을 보고 어쩐지 적어 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인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삼위일체의 교육을 표출했음이 아닌가 생각하며 앞에 놓여 있는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 잔치 현황표와 분야별 추천기준을 보면 나는 영역별 학생들의 실력이 대단함에 내심 놀랐다. 컨셉 그대로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으로 각 영역별 선정된 모든 학생들은 장차 포천뿐만 아니라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

실력과 자질, 끼가 아무리 내재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굴 육성해서 인재로 키우지 못한다면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의 부재 일뿐더러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며 안타까운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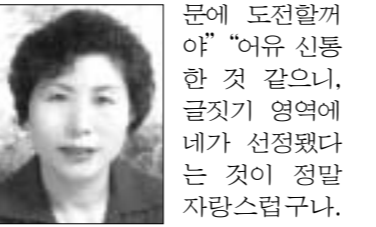
각부형이 된지 9년 차에 현 최길용 교육장님이 다섯 번째 교육장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간 역임하셨던 모든 분들이 열악한 포천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하셨을 것이며 발전에 기여 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셨겠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정말 포천교육에 희망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실감하고 가슴이 뛰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1일 부임한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으로 부터 포천교육 경영에 대한 비전을 들었다. 최 교육장은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자질 함양에 힘쓰고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장의 경영철학과 교육시책 구현의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2006년 9월20일자 포천신문 특별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는데 바로 그 시책 구현이 시작됨이 아닌가!

말이나 글로 탁상공론이 아닌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축사를 해주신 박윤국 시장님께서도 글로벌 인재 육성이야말로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시가 지향하는 바이며 교육이야말로 인류사회의 가장 고귀한 보물이자 최고의 가치 있는 투기이며 교육에 의해 미래가 좌우된다는 관념에 유수한 대학 및 특성화 학교를 몇 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할 것이며, 한수이북지역에서 대표적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음을 말씀 하셨다.

이번 행사에 글로벌 인재 새싹으로 선정된 인재들은 더욱 분발 할 것이며 많은 학생들이 인재 새싹이 되기 위해 희망과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 할 것이라 생각하니 정말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정했다. 행사장을 나서며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나 올해엔 학력 부문과 영어 부



김기호 포천중학교 운영위원장

문에 도전할까요" "어유 신통한 것 같으니, 글짓기 영역에 내가 선정됐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고맙다 딸아! 엄마를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니 내 딸 수정이는 정말 효녀구나" "엄마 정말! 난 강원중학교 학생이라는 것과 엄마 딸임이 자랑스러워요" 집으로 오는 내내 이러한 행사를 관내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홍보되어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이러한 행사가 지속 계승 발전되어 인재 새싹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이 행사에 함께 자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왔다.

그날 밤 딸과 나는 상품으로 받은 책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 꾸다'와 '기만하다'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를 읽으며 밤을 하얗게 썼다.

Essay

설날 그믐의 정담



윤순옥 포천여자고등학교 교장

설날 그믐이면 집 떠난 지 오랜 사람도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오는 날이다. 객지에서 생활하다 돌아올 자식을 위해 어머니 마음은 진작부터 동구 밖 먼 곳까지 시선을 빼지 못하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보고 싶던 모습이 저만치 보이던 설레는 마음 갈지 않게 몸은 다다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놓고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에 조상님 들께 정성으로 제를 올리고 환담을 나누며 음식을 먹는다.

모자람 속에 정은 더 깊게 마련이다. 싸다른 음식은 사랑하는 자식 입에 넣어주고 싶고 자식은 부모님 잡수시게 미루고 아까다 서

로 먹지 못해도 마음은 먹은 만큼 배부른 게 가족의 정이다. 평생을 가족 위해 봉사하시다 돌아가신 내 어머니!

위로 시부모님, 시누이, 시동생, 또 내 자식까지 이 모든 식구들의 배를 채워야 당신이 비로서 한술 떠셔야하는 고달픈 삶의 연속에 가벼운 짐처럼 어머니의 체구는 가벼워 있었다. 그 사람이 가신 뒤에 한스레씩 맴도는 가슴 치는 그리움은 이제 삭달만도 하련만 지울 수 없는 아픔은 설날이 되면 더욱 생생하다.

내 곁을 다 떠나버린 자식 기다리는 마음이 내 어머니 같을까.... 지금은 풍요로움에 넘쳐나는 물질

시대, 본인의 형편만큼 검소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아이들에게 매번 말해주고 있다.

아릴 때부터 보고 익힌 터라 세 남매가 내 기대치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 생활에 작은 여유가 있어 행복하고 설날 그믐밤을 보내며 즐거운 환담을 나눌 것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직 어린 손주들에게 교육시키고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기도하며 설날 그믐밤을 나는 그렇게 보낼 것이다.

자유기고

제2의고향 송우리

둘째아이 백일 다음날 이곳 포천으로 이사 온 지도 어언 30년이 다 되어간다.

낮설고 물 설은 이곳은 휴전선이 가까워서 남쪽이 고향인 나는 처음 보는 탱크와 군인아저씨들이 많아서 어딘가 모르게 긴장되는 생활이었다.

43년 국도가 2차선이었을 아이들 손잡고 냇가에 나와서 물고기도 잡아보고 우렁도 잡아 보았다. 가을이면 남편의 오토바이에 매달려 여기저기 놀러 다녔는데 소쿠리를 놓아서 미꾸라지를 건져다가 가을이면 추어탕을 자주 끓여먹곤 했다.

30년이면 강산이 몇 번이나 변

했을까? 아마도 셀 수 없이 변화가 많았다. 43년 국도는 4차선국도로 변하여 홍수처럼 밀려드는 차량행렬로 몸살을 앓고 있고 주변에는 상가들이 즐지어 생존경쟁으로 몸살들이다.

그때 송우리 장날이면 서울에서 이사 온 나는 송우리 장날이 재미있었다. 얼마 같으니 아주머니들이 서로 팔아달라고 손을 당기면 나는 공주처럼 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 재롱에 눈가 잔주름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다.

전화 한대로 온 마을이 사용할 때가 30년 전인데 지금은 손에손

에 핸드폰을 들고 아나아 어른이나 서로서로를 전하고 있다.

연애시절 하루종일 우체부 아저씨만 가슴 조이며 기다리던 시절 편지 왔다고 소리치며 전해 주던 시절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놀이하던 시절 어쩌면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

소도시에 영국 홀플러스가 들어오고 이 또한 격정이다. 이제 상권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몇 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지 내일을 향해 조심조심 아름답게 살아보려나.



강옥자 주부영재가정교사

자유기고

꿈^^***

어릴적 꿈이 생각 난다.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했다. 하지만 바로 위의 오빠가 있어서인가. 오빠는 인문계 난 상과 어쩌면 집안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서 그리 했을 거라 생각도 들고 그때까지 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가는 것을 꿈도 못 꾸었다.

하지만 지금 중년이 들어서야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니 이것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마음도 든다.

어차피 만년생이긴 하지만 대학이라는 문턱에도 가 보게 되고 하나 하나 이루어 가는 일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한다.

꿈일까 아닌 나의 생각일까. 그래도 행복하다. 꿈을 이룬다는 것 더 없이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들이 되었다. 날은 등록해야지. 다음주 인지 알았는데~~~~ 큰일 날 뻔 했네. 등록 기간을 잊을 뻔해서. 그럼 날부터 난 대학

생이 되는 것인가~

정말 축하 받고 싶는데. 어쩌면 주위의 사람들이 축하한다 하면서도 시샘만 부러움만. 그러가 보다. 그래서 더 맘이 상한다. 언젠가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



김순희 주부영재가정 내몬안사부부

자유기고

상계마을 잔치 진행

명절이 돌아오면 어려운 살림에 마음이 서글퍼지고 쓸쓸함을 느낀다. 그런 와중에 소방방재청 주최로 설맞이 안전복지서비스 한마당 문화행사를 동고동 상계마을에서 실시했다.

왕초보인 저에게 사회를 맡으라고 포천시청 재난관리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못하겠다는 거절도 못하고 시민안전봉사대 소속이니까 부딪쳐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소방방재청장님 소개하고 선단동 주민, 우리춤 건강체조, 김과도마를 이용한 송송환의 난타 하

이리이트 공연, 주민과 군인아저씨들의 노래자랑, 방재청에서 준비한 선물과 어우러진 노래자랑으로 진행됐다. 날씨가 추워져 오후5시에 막을 내릴 때쯤 처음에는 노래 안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흥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던 더욱 멋진 무대를 연출해보고 싶다.

면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기분과 여러 사람들이 즐겁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특히 소방방재청의 상계마을 사랑의 잔치라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하며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더욱 멋진 무대를 연출해보고 싶다.



이명순 주부영재가정 소풍삼부부



이론과 현실사이에 괴리

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신의 세계, 그리고 과학의 이름으로 설명이 가능한 과학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모르고 있는 세계를 영어로는 'unidentified world' 라 하고 알고는 있으나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를 'spiritual world'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한 세계를 'scientific world' 라 한다.

실제로 우주본체는 이렇게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으로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해낸 것만을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종교 신앙 같은 정신분야도 존재하고 있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조건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짚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어야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다. 꿈은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수치화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꿈꾸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종교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느끼고 체험하지만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것을 보여줄 수 없다. 표현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보여줄 수는 없다.



이규임 인문영재학원원장

인터뷰

이은미

제5대 한국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 포천시분회장

"낙농발전과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노력"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 포천시분회 제5대 회장에 이은미(42·사진)총무가 선출됐다. 신입이 회장을 만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었다.

▶당선소감 그동안 총무로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포천시분회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요사업계획 먼저 체계적인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낙농으로서 기본적인 품유유지는 물론 우유요리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우유요리상품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여성낙농대학에 참여해서 정보확보는 물론 연구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낙농발전을 위해 정부에 바라고 싶은 사항

방역활동에 필요한 기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겨울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대형화 되어 있어 관리가 힘든 점이 있다. 실질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소규모 목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역기구를 보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포천시에 바라고 싶은 사항

아름다운 목장 사진 콘테스트와 같은 사업을 여성분과 포천시분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

록 포천시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포천시 각 지역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좀 소소한 단체라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회원들과 단합하여 우유요리를 만들어 사회 복지시설도 방문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등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들도 함께 격려하고 같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